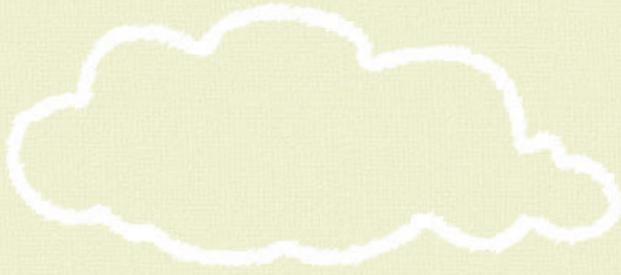


## 김서영(성우)

# 주어지는 것에 욕심내는 열정이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든다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는 5월의 어느 날 압구정 커피숍에서 해맑은 모습의 김서영 성우를 만났다. 그녀는 1999년 MBC 15기 공채로 시작하여 숨 가쁘게 달려와 어느덧 성우생활 10년을 넘겼다. 그동안의 시간만큼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맛깔스러운 연기로 표현해내면서 시·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성우는 캐릭터에 목소리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아내는 과정임을 공감할 수 있었던 유쾌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 성우의 길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연기에 매료됐는데 연기의 기본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목소리와 관련된 성우에 대한 정보를 여기저기서 수집하던 중 지인에게 조언을 얻으러 갔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목표를 잡고 성우시험 준비를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그 중 6개월은 무조건 듣는 데만 집중했어요. 드라마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찰하고, 워든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변의 다양한 소리들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 한줄 대사

MBC에 입사해서 첫 배역이 여, 대사는 “오우 멋지네요.”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첫 대사여서 그런지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계속 읊조리고 녹음하기 전까지 영상을 머리에 되새기며 계속 소리를 다듬었어요. 한줄 대사인데도 너무나 떨렸어요. 배역을 맞아 연기를 한다는 것이 긴장감과 떨림을 안기더라고요.



## 프리랜서의 출발

MBC에서 3년의 생활을 마치고, 프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능성을 믿어주셨어요. 운도 따라줬는데, 그 당시 ‘엽기’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참신하고 기존과 다른 트렌드가 주목받는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오디션을 보는데 “좀 다르네”라는 표현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 기회가 찾아오면서 프리랜서의 길이 시작됐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큰 행운이 그 시절에 찾아온 것 같아요.



## 성우와 노래

성우는 어려우면서도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화면에 비춰지는 연기자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다양성을 잃을 수 있는데, 성우는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또 다른 캐릭터를 창조해 내어나요. 노래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노래도 연기의 일부이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노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노래는 <닥터 슬럼프>에서 엔딩곡, <으랏차차 짘돌이네>에서 오프닝곡과 엔딩곡, <러브 인 러브(러브히나)>에서 오프닝곡과 삽입곡 등을 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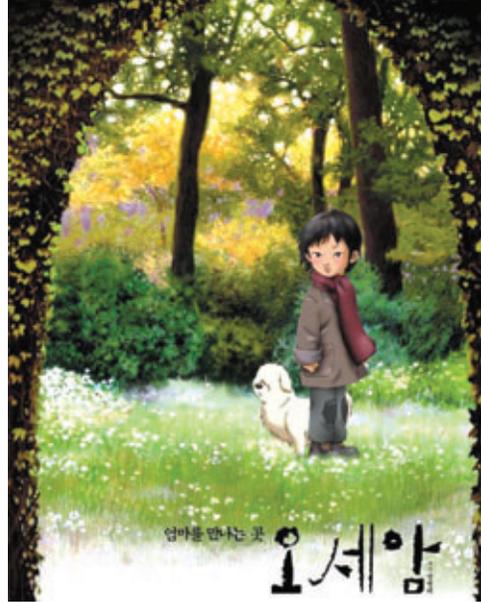
## 기억되는 작품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캐릭터가 <도라에몽>의 도라에몽, <오세암>의 길손이, <닥터슬럼프>의 아리, <NEW 아기공룡 둘리>의 둘리 등인 것 같은데요. 그 뒤로 넘어가면 “어?~” (^^) 하실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은 <도라에몽>, 외화는 <스크림>의 커트니 록스, 광고로는 <SHOW>에서 노래했던 것 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5월에 개봉한 <드래곤 길들이기>의 아스트리드와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라는 코너에 캐스트로 출연하고 있어서 인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 NEW 아기공룡 둘리

부담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오디션에 통과하고 첫 녹음이 시작됐는데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둘리는 너무 재미있는 국민 캐릭터로 국민의 마음에 이미 각자의 색깔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잘못 표현하면 시청자들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감이 컸어요.

그런데, 김수정 작가님이 인생을 걸고 준비를 하신 작품이기에 큰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부담감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바뀌면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뉴 둘리에서 놀란 게 둘리의 캐릭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서정적이기 보다는 장난꾸러기 혹은 어른들의 시각을 얘기하는 캐릭터더라고요. 기존 것과는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 성장한 시간

입사하고 6개월 만에 오디션을 통과해서 <닥터슬럼프>의 아리역을 맡고,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도라에몽>을 했어요. 그렇게 독특한 캐릭터들을 해오면서 전 작품들이 다음 작품을 하는데 발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어요. 프리랜서가 되면서 <오세암>의 길손이역으로 더욱 성장하게 됐어요. 앞에 했던 작품들이 시너지효과로 작용했죠.

포기라는 것을 가르쳐 준 시간도 있었어요. 2006년에 <도라에몽>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목이 너무 아프고 변하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성대결절' 직전이니깐 지금 모든 것을 멈추면 본연의 목소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라에몽>을 놓아야 하는 위기. 목이 아프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더욱 크게 느끼고, 그 후 한 작품, 캐릭터 하나하나에 더욱 집중하고 욕심내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 목소리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방송의 힘을 느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MBC 라디오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금요일마다 출연하는데 택시기사님들이 라디오를 애청하시나 봐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참하면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통화를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해 계산을 하는데 "서영씨죠,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기사님들이 라디오를 애청하다보니 전화통화 목소리를 듣고 저 인줄 아신 거예요. 그 후론 택시 안에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 김서영의 미래

주어지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자체가 좋고요. 무엇을 해야지 라는 욕심보다는 주어진 캐릭터에 대해서 끝임 없이 노력하는 욕심이 더 많아요. 성우에게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일하면서 캐릭터를 연구하고 연기에 노력하고 사랑하면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도움(기회)을 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하고 지나온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잘 표현하지 못해서 도움 주셨던 분들께 미안하고 또 감사해요. 그분들의 고마움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겸손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